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200

1 국제교류원 칼럼(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첸 인)

- 가고시마현 신입 국제교류원으로부터 니하오🐼

2 지사 관련 새 소식

- 제 46 회 기리시마 국제음악제 파이널 콘서트 수료식에 참석했습니다(8 월 3 일)
- 2025 년도 「가고시마현 청소년 해외 교류 사업-싱가포르 교류코스-」 파견단 단원들이 귀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8 월 19 일)
- 2025 년도 「사츠마 스튜던트 파견사업」 참가자들이 귀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8 월 21 일)

3 가고시마 제철 뉴스

- 가고시마현의 햇차 생산량이 처음으로 일본 제일이 되었습니다
- 가고시마현내에 많은 여름 축제가 열렸습니다🌻

국제교류원의 칼럼

● 가고시마현청 신입 국제교류원으로부터 니하오🐼●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첸 윈(중국 출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으로 부임하게 된 첸 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눈 깜짝할 새 가고시마에 온지 4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 곳에 온 날이 마치 어제 처럼 느껴집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결혼, 출산까지 저는 계속 “레일 위를 달리는 듯 한” 평범한 보통의 삶을 지내왔습니다. 4월 말 재중국일본국대사관에서 연락을 받고 JET 프로그램에 무사히 합격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흥분, 기쁨, 놀람, 두려움, 망설임 등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별한 인생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혼자 해외 생활을 해본 적 없는 내가 과연 미지의 땅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5월 20일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을 안고 가고시마에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고시마의 상징 사쿠라지마



사쿠라지마에서 발견한 하트모양 돌

가고시마에 온 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이 곳 생활에 적응 하였나요?” 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고 대답합니다. “정말 빨리 적응하였네요!”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적응력이 높아서가 아닌 여러분이 일상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무사히 즐겁게 지내

고 있습니다. 미리 알아봐 주신 쾌적한 주거환경,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한 번잡한 수속 절차의 대행, 방의 전구를 달아주신 것, 길을 헤매고 있던 저를 협회까지 데려다주신 것, 폭우가 내리던 날 침대의 배송을 도와주신 것, 건강 검진에 같이 가주신 것, 단오날에 일본의 치마키를 맛보게 해주신 것, 사무시스템의 사용 방법을 끈기 있게 가르주신 것, 아무리 작은 질문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 것, 돈카츠와 라멘 등 맛집에 데려다주신 것, ATM에서 이체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 유리컵을 선물해 주신 것, 실수로 깨버렸을 때도 괜찮다고 해주신 것, 서투른 일본어를 따뜻하게 지켜봐주시는 것, 온천의 티켓을 주신 것... 이런 배려 하나 하나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타국에서 살고 있는 제 생활에 따뜻한 빛을 비춰,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만난 것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가고시마에 오고 나서 팸플릿이나 홈페이지, 가까운 동료나 친구와 상담하거나 실제로 경험한 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고시마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화산과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고시마는 자연의 총애를 한몸에 받은 도시입니다. 저는 사쿠라지마에서 이 곳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특이한 용암지형 그리고 화산과 공존하는 도민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마즈 가문의 별장인 센간엔



사타곳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다



츠루마루성과 연꽃

의 일본풍 건축물에 수 놓아진 일본의 아름다움과 사쿠라지마와 긴코만의 독특한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일본 최남단 사타곳에서는 비취색으로 빛나는 꿈만 같은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남국을 느낄 수 있는 이부스키에서는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모래찜질을 체험했습니다. 기리시마 신궁에서는 신을 향한 경외심을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지

겐지에서는 도시의 소란함에서 한발 물러나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가고시마는 화산과 바다가 수놓는 환상적인 풍경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매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저는 시끌벅적한 「로쿠가츠도」 축제에 참가하여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을 품에 안고 있는 강한 마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가고시마의 「오기온사축제」에서는 이 곳의 뿌리 깊은 전통문화가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고시마 과학관에서 특별 상영 작품 『MOON BASE』를 통해 우주의 광대함과 인류의 미지를 향한 도전정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꿈을 꾸는 듯한 수족관에서 다양한 해양생물의 세계를 접하여 자연 보호의 책임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레이메이칸

에서 개최된 인기 작가 다나카 타츠야의 미니어처 전시회에서 일회용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독창적인 발상에 감탄함과 동시에 평범한 것들에 깃들어 있는 비범함의 가능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고시마는 정말 보물상자같은 곳으로 발을 딛을 때마다 새로운 발견과 독특한 매력들이 찾아옵니다. 이 곳이 발산하는 신비로운 인력에 사로잡혀 저는 매일 호기심이 생겨납니다. 앞으로도 가고시마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런 귀중한 국제교류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중일 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려, 중일유호교류의 징검다리가 되어 중일 양국의 우호 교류를 위해 미력하게나마 공헌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미니어처전시회

지사관련 새 소식

●제 46 회 기리시마 국제 음악제 파이널 콘서트, 수료식에 출석 하였습니다(8 월 3 일)●

국내외의 저명한 음악가와 수강생들을 초대하여 미야마 콘셀을 중심으로 개최한 제 46 회 기리시마 국제 음악제의 마스터 클래스의 수료식에 출석하였습니다.

이 날은 수강생들도 참가한 파이널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개최되어 피아니스트 엘리소 비르살라제씨에 의한 피아노 협주곡 등 로맨틱하고 정열적인 연주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이 마스터 클래스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살려 이곳 기리시마에서 세계로 뻗어가, 장래에는 연주가와 지휘자로서 이 음악제에 다시 출연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파이널 오케스트라 콘서트의 모습

●2025 년도 「가고시마 청소년 해외 교류사업 -싱가포르 교류코스-」파견단 단원들이 귀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8 월 19 일)●

2025 년도 「가고시마 청소년 교류사업-싱가포르 코스-」파견단 단원들이 귀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단원들은 「가고시마의 매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공생 사회를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국제적 시야가 넓어졌다」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단원들과 기념 촬영



▲보고회의 모습

●2025 년도 「사츠마 스튜던트 파견사업」의 참가자가 귀국보고회를 열었습니다(8 월 21 일)●

7 월 22 일부터 8 월 4 일까지 사츠마 스튜던트 파견사업으로 영국을 방문한 고등학생 2 명과 인솔교사 1 명이 시오타 지사에게 귀국보고를 하였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강의와 그룹활동을 통해 일본과 다른 점을 배울 수 있었다», 「다양한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 장래의 꿈과 이어지는 귀중한 체험이 되었습니다」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시오타 지사는 영국 주재중에 느낀점이나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강의의 내용 등에 대해 물으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가한 고등학생 두명이 이번 파견에서의 경험을 살려 장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받은 기념품을 들고 기념촬영



▲이번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가고시마 제철 정보

●가고시마현의 햇차 생산량이 처음으로 일본 제일이 되었습니다●

2025년 봄에 수확된 햇차(그 해 첫번째로 딴 차)의 가고시마 생산량이 1991년 이래 처음으로 일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가고시마현의 햇차의 생산량은 8,440톤으로 2위인 시즈오카현보다 320톤 많으며 국내 생산량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가고시마현은 4월 이후 맑은 날이 많고 적절히 비도 내려, 순조로운 생육기간을 거쳐 면적당 수확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오타 지사도 「올해 햇차 수확량이 시즈오카현을 넘어서게 되어 2번차(그 해 두번째로 딴 차), 3번차(그 해 세번째로 딴 차)를 포함한 아라차(荒茶, 1차 가공만을 거친 차)의 생산량도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가고시마현 미나미큐슈시 차밭의 모습(가이몬다케와 함께)

사진 협력 : 공익재단법인 가고시마현 관광연맹

●가고시마현 내에 많은 여름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가고시마현의 여름축제의 풍물시라고도 불리는 「가고시마 긴코만 섬머 나이트 불꽃놀이대회」를 시작으로 가노야시에서는 2,000명 이상의 행렬이 시내를 누비고 다니는 「가노야 여름축제」, 마쿠라자키시에서는 항해의 안전과 만선, 오곡풍작, 상업번창, 지역산업의 진흥을 기원하는 「사츠마 쿠로시오 기바란해 마쿠라자키항 축제」등 현재 다양한 곳에서 여름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축제마다 그 지역만의 매력을 직접 느끼기 위해 현 내외에서 많은 방문객으로 붐볐습니다.



▲가고시마 긴코만 섬머 나이트(가고시마시)

사진 협력 : 공익재단법인 가고시마현 관광연맹



▲사츠마 쿠로시오 마쿠라자키 축제 (마쿠라자키시)

사진 협력 : 공익재단법인 가고시마현 관광연맹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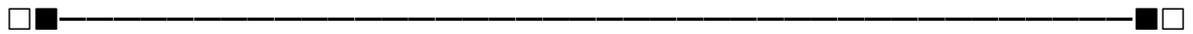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가을이라고는 하나 아직 땀 흘리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7 월부터 가고시마 유나이티드 FC 의 활약에 응원의 열기와 늦더위로 땀 범벅입니다(^_^);

9 월에는 핸드볼 팀 블루 사쿠야, 10 월에는 농구팀 가고시마 레브나이즈도 각각 개막합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뛰는 것을 보면 감동받아 자기도 모르게 응원에도 힘이 들어가곤 하죠! 지역 팀을 응원하면서 스포츠의 가을을 즐겨보는건 어떠신가요

또, 이번 호는 기념할만한 메일 매거진 200 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200 개의 걸음을 소중히 하면서 가고시마현의 국제교류에 관한 뉴스를 앞으로도 즐겁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l@pref.kagoshima.lg.jp

중국어 : cir2@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